

침을 이용한 국소 피부주름 치료에 대한 연구

임명진 · 김병수 · 김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생리학교실

Study on the Local Wrinkle Cure Using Acupuncture Needle

Myung Jin Im, Byung Soo Kim,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wrinkle is a typical sign showing aging. These days lots of people want to have a young and healthy appearance and many medical doctors are studying about wrinkle cure. In fact a young face without wrinkle looks more healthy and energetic. Therefore the wrinkle cure is important at the point of medical view. This research is an investigation of several studies about wrinkle cure using acupuncture needle. We have to consider the problem of the whole body which is related 12 meridians and meridian muscles as well as topical skin and tissues. There are three parts affecting wrinkle formation and cure. The first is a meridian and meridian muscle, the second is a local muscle and fascia on the head and neck, the third is a local skin structure. There are three kinds of method to cure the wrinkle locally. The first one is the perpendicular treatment of acupuncture, called the microneedle therapy, the process of this method is that lots of microneedles stab in the skin to dermis. The second one is the transverse treatment of acupuncture. The process of this method is that an acupuncture needle inserts just under the wrinkle skin. The third one is the incision treatment of acupuncture, called subcision, the process of this method is to cut the fibrous band which connect from the facial muscle to SMS(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 using cuttable needle. The hematoma after treatment let a collagen increase.

Key words : wrinkle, acupuncture needle, subcision

서 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현상 중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 주름이다. 주름은 그 자체가 질환은 아니지만 창피함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하여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주름을 비롯한 피부노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활력이 떨어져 보이고, 덜 건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기 좋게 노화가 잘 진행되고,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의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피부주름 개선 방법으로 화학박피, 레이저시술 등과 같은 수술요법과 고주파 치료^{1,2)}, 적외선 치료와 같은 비침습적인 요법³⁾, 비타민 제제 투여⁴⁾ 및 생약성분 국소 도포⁵⁾와 같은 약물요법들이 활용되고 있고, 피부주름은 연령에 따라 주름지수가 변화⁶⁾한다는 보고가 있다.

한의학에서 주름은 젊어서는 혈이 충만하여 피부가 윤택하고 주름이 생기지 않지만, 노쇠하면 혈이 고갈되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긴다. 하지만 젊어서도 혈이 빈약하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늙어도 혈이 풍성하면 피부가 윤택할 수 있다⁷⁾고 하여 주름이 나이뿐만 아니라 혈의 充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靈樞』에 주름과 장부, 안면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肺는 眉間에, 心은 양눈의 사이, 肝은 그 아래 鼻柱로 분류하였고⁸⁾, 오관의 작용 중에 입술은 脾의 작용을, 귀는 腎의 작용을 본다⁸⁾고 하였다. 이러한 『內經』의 장상이론을 토대로 이마주름은 肺虛, 山根주름은 心虛, 코위주름은 肝虛, 귀 주름은 腎虛, 입술주름은 脾虛로 보고 臟腑 虛實을 진단하기도 한다⁹⁾.

서의학에서는 주름 형성에 있어 피부와 피하의 근육층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의학에서는 근육을 12경근으로 설명하는데, 경근은 힘줄로써 肌肉뿐만 아니라 腱·靭帶·筋膜을 포괄한다¹⁰⁾. 12경근이론에 의하면 얼굴의 경근은 사지 및 몸통의 근육과 연결되어 전신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12경락은 血을 추동하

* 교신저자 : 김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E-mail : omdkjs@djju.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9/09/29 · 수정 : 2009/10/27 · 채택 : 2009/11/04

고, 근육을 움직이는 관점에서 안면부 주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전면의 陽明經絡과 측면의 少陽經絡, 후면의 太陽經絡은 이들 경락의 기혈순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의학계에서도 피부주름 및 노화예방에 대하여 미용 침요법¹¹⁾, 정안침¹²⁾, 미소안면침¹³⁻¹⁵⁾ 등과 같은 침법을 중심으로 관심과 연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전신을 유기적 관계로 보는 경락-경근적 관점과 국소적인 근육과 근막의 관점, 국소적인 피부주름재생에 대한 관점으로 나누고, 침을 이용한 주름치료의 한의학적인 근거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주름의 치료와 연관된 조직

1) 경락과 경근

血이 부족해서 생기는 주름과 표정근육의 수축으로 생기는 주름은 경락과 경근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다. 이는 경락이 내부로는 장부를 두르고, 외부로는 체표에 빠짐없이 분포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기혈을 전신에 순환시켜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때문이다¹⁶⁾. 경근은 12경맥과 락맥속의 기혈이 자양하는 근육·건·근막·인대 등이며, 12경맥의 순행부위상에 분포된 체표근육계통의 총칭으로 운동굴신하는 근육군을 의미한다. 경근이론은 근육계통을 개개의 근육이 아닌, 기능과 병증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¹⁰⁾.

경락과 경근의 관계에 대해서 高 登¹⁷⁾은 “혈위는 경맥에 매어 있고 경맥은 경근에서 나온다. 경근은 산맥과 같고 경맥은 하천과 같고 혈위는 하천의 양쪽 둑을 따라 형성된 마을일 뿐이다. 그러므로 혈위를 말하려면 먼저 경맥을 말하고 경맥을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경근을 말해야 한다.”고 하여 경맥과 경근이 밀접한 관계임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경락과 경근의 유기체적 관점은 안면부의 피부·근육에 기혈의 순환을 원활히 하는데 국소적인 관점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름의 국소적 치료와 전신적 치료로 볼 때 경락과 경근을 이용한 치료는 전신적 치료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주름부위의 표피·진피·근육에 직접 자침하는 것도 있지만 경락과 경근의 순행노선에 따라 원위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깊은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면의 피부와 근육을 거상(lifting)시키는 전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면부주름에 연관된 조직이 피부·근육이 추가 됨을 볼 때 피부를 주관하는 수태음폐경, 근을 주관하는 족궤음간경, 기육을 주관하는 족태음비경, 인체의 음혈을 주관하는 족소음신경이 원위취혈의 기본 경락으로 선택될 수 있다.

한편 경락의 주행노선과 장상학적 이론에 따라 주름 부위를 경락과 연관시킬 수 있다. 이마주름·눈밑주름은 족양명위경, 미간주름은 족태양방광경, 눈가주름은 족소양담경과 수소양삼초경, 수태양소장경, 팔자주름은 수양명대장경과 족양명위경, 입가·입꼬리주름은 수양명대장경과 족양명위경, 족궤음간경, 족태음비경, 턱주름은 입맥과 족소음신경이 선택된다. 특히 피부 기혈 상태는 燥濕으로 평가되는 바, 같은 金장부이면서 濕을 주관하는 수태음폐경, 燥를 주관하는 수양명대장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¹⁸⁾. 또한 『素問·靈蘭秘典論』에 “三焦는 決瀆의 관직에 해당하여 물이 흐르는 길을 주관한다.”¹⁹⁾고 하였고, 특히 『靈樞·決氣』에서는 “上焦의 기능이 오곡의 맛을 퍼뜨려 피부를 훈증하고, 몸을 충실하게 하며, 피모를 윤택하게 한다.”²⁰⁾고 하였다. 이처럼 삼초는 진액이 피부로 전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취혈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2) 근육

안면주름의 치료에 목표가 되는 근육들로는 전두근(이마힘살, frontalis m.), 안륜근(눈둘레근, orbicularis oculi m.), 추미근(눈썹 주름근, corrugator supercilii m.), 비근근(눈살근, procerus m.), 미모하체근(눈썹 내림근, depressor supercilii m.), 비근(코근, nasalis m.), 상순비익거근(윗입술꽃날개 올림근, levator labii superioris alaeque nasi m.), 구륜근(입둘레근, orbicularis oris m.), 광경근(넓은 목근, paltysma m.)²¹⁾ 등이 있다.

(1) 이마주름

이마힘살에 의해 생기는데 전두근은 앞이마를 위로 올리고 앞이마의 피부를 올리는 유일한 근육이다. 이마힘살의 근섬유들은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앞이마의 주름들은 수평으로 배열된다. 이마힘살의 수축시 이마의 앞머리 선이 앞으로 움직이고, 아래쪽 부분의 수축시에는 눈썹을 올리는 기능을 한다. 즉, 이마힘살의 수축은 아래위로 이마를 좁히는 것과 같다²¹⁾.

(2) 미간주름

4가지 근육에 의해 생기는데, 눈둘레근, 눈썹 주름근, 눈살근, 눈썹 내림근이 그것이다. 이 근육들은 눈썹을 아래로 당기고 중앙으로 모이게 한다²¹⁾.

(3) 눈가주름

눈둘레근에 의해 외측부에 잘 생기며 나이가 들고, 자외선에 의한 손상과 잦은 웃음등 표정을 많이 짓는 사람에게 많다. 이 주름은 외안각 부위에서 부채살 모양으로 퍼지면서 생기는 주름으로 눈둘레근의 방향과는 직각으로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²¹⁾.

(4) 팔자주름

코와 입의 옆부분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내려가며 노화가 진행되면서 중력에 의해 피부와 근육이 아래로 처짐으로써 발생한다. 신생아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주름이다. 따라서 이 주름은 우리가 쉽게 나이를 평가할 수 있는 주름이다. 광대근(관골근, zygomaticus major & minor), 상순비익거근(윗입술 꽃방울 올림근, levator labii superioris m.), 구각거근(입꼬리 올림근, levator anguli oris m.), 소근(입꼬리 당김근, risorius m.)이 관여한다²²⁾.

(5) 처진입꼬리주름

하순하체근(아랫입술 내림근, depressor anguli oris m.)에 의해 생기는데 턱선 중간부위에서 기시하여 입가쪽에 있는 피부에 부착한다. 근섬유들의 앞쪽 부위에서 피부에 부착하는 위치에 주름선을 만들어 소위 말하는 슬픈 주름을 만든다²¹⁾.

(6) 턱주름

이근(턱끝근, mentalis m.)의 과수축으로 생길 수 있다.

(7) 입가주름

구륜근(입둘레근, orbicularis oris m.)의 수축으로 생기는 주

름이다²¹⁾.

(8) 목주름

광경근(넓은 목근, platysma m.)에 의해 생기는데 넓은 목근은 가슴상부의 천근막(얇은 근막, superficial fascia)와 쇄골과 견봉부(어깨봉우리부위, acromial region)에서 기시한다. 이 근육의 근섬유들의 뒤쪽 부분은 앞으로 뺨어 아랫입술 내림근과 입꼬리 당김근, 입둘레근의 외측부와 섞여 얽혀서 입꼬리 부위에서 끝나게 된다. 앞쪽 내측의 근섬유는 턱뼈의 몸체 내측부의 골막에 부착되는데 넓은 목근이 수축할 때 목의 내측에 밴드를 일으키는 것이 이 앞쪽 근섬유들이다. 또한 위에 소개한 근육들은 안면부의 주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근육들이며, 이들 외에도 안면부 근육이나 근막에 영향으로 주어 간접적으로 주름을 일으키는 근육이 있는데, 후두근(뒤통수힘살, occipitalis m.), 승모근(등세모근, trapezius m.), 흉쇄유돌근(목빗근, sternocleidomastoid m.), 대흉근(큰가슴근, pectoralis major m.), 흉골근(복장근, Sternalis Muscle), 이복근(두힘살근, digastric m.), 교근(깨물근, masseter m.), 측두근(관자근, temporalis m.) 등이다.

3) 근막

안면부에서 중요한 근막으로 표층근건막체계(SMAS, 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가 있다. 표층근건막체계는 안면근들을 둘러싸고 얽혀있는 근섬유층이다. SMAS의 섬유성 격막은 지방을 가로질러 진피에 부착된다. 그러므로 SMAS는 안면근의 수축을 피부에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한다²³⁾. 얼굴피부가 얼굴뼈에 붙어 있는 것을 빼와 피부가 겹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조직이 SMAS층이고, 나이가 들면 이 SMAS층이 늘어져 피부가 처진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정설이다²⁴⁾. 또한 안면에는 근막피부인대(fasciocutaneous ligament)와 골피부인대(osteocutaneous ligament)로 알려진 매우 강한 유지인대가 있다. 근막피부결합(fasciocutaneous attachment)은 여러 개로 연속적인 안면층에 존재한다. 이러한 근막피부결합은 진피에서부터 나와서 SMAS층에 부착한다. 근막피부인대는 전두부·눈·코·입술·턱부위에서 특히 강하게 부착되어 있고 외측 협부, 경부에서는 중간정도의 강도로, 내측 협부, 관자놀이 부위에서는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다²³⁾. 이외에 두개골을 싸고 있으면서 전두근과 후두근을 연결하는 모상건막(머리덮개널힘줄, galea aponeurotica)과 측두근을 덮고 있는 측두근막(관자근막, temporal fascia), 대흉근막(큰가슴근막, pectoralis major fascia), 이하선근막(귀밑샘근막, parotid fascia), 교근막(깨물근막, masseteric fascia), 경근막(목근막, cervical fascia) 등이 있다.

4) 피부

피부 구조를 서양의학에서는 표피·진피·피하지방층으로 나누지만 한의학에서는 膚·革·分肉·肌·腠理·玄府 등으로 나눈다. 膚와 玄府는 표피와 유사하고, 革은 진피와 유사하며, 分肉은 진피내의 肌肉과 革下의 피하지방을 포괄한다²⁵⁾. 피부는 기육과 달리 전체가 氣孔으로 형성되어 있고, 기공에는 細毛가 구멍마다 하나씩, 곳에 따라 두개씩 자라 있다. 피부결(skin texture)과 근육조직간극의 결합조직을 腠理라고 하는데²⁶⁾, 이로 인해 신축성이 생겨서 풍한이 외부에서 침투하면 방어하고, 습열이 내부에서

발생하면 소산시켜 오장·육부·근골·기육을 보호하게 된다. 피부에는 손맥과 락맥이 중형으로 연결되어서 신속한 통신망이 되어 있으니, 손맥은 표면에 락맥은 이면에서 각각 작용한다. 경맥은 기를 주관하는데 반해 락맥은 혈을 주관하므로 피부를 자양하는 혈은 락맥을 통해 공급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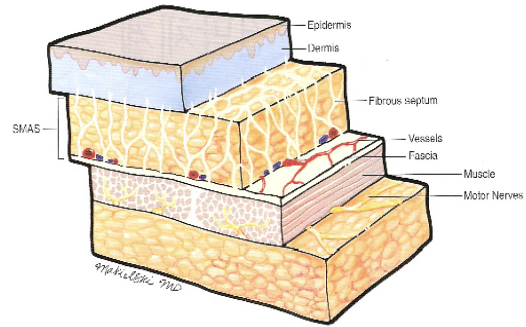


Fig. 1. SMAS layer and skin²³⁾

2. 주름치료에 이용되는 침의 종류

『靈樞·九鍼十二原』에 鑱鍼·圓鍼·鍤鍼·鋒鍼·鈹鍼·圓利鍼·毫鍼·長鍼·大鍼의 쓰임새에 따른 9종의 침 종류에 대한 기술이 나온다²⁰⁾. 여기서 毫鍼과 長鍼·을 제외한 鑱鍼·圓鍼·鍤鍼·鋒鍼·鈹鍼·圓利鍼·大鍼 등 나머지 7가지 침은 유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기를 찌거나, 사혈, 피부자극을 목적으로 한다. 침이 단순히 경락순환만 소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과적인 도구로써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경·안면부 정안침요법과 황자침법에는 호침이 쓰이며, 직자침법에는 피부침·거침(車鍼)·도장침이 쓰이고, 절개침법에는 삼릉침이나 노커침(nokor needle), 경사면이 3개인 바늘(tri-beveled needle) 등이 사용된다.

3. 국소적인 주름 치료

1) 직자침법

직자침법은 매화침·도장침·피부침에서 유래된 것으로 진피층으로 직자시켜 미세한 상처를 내고 이 부위에 상처를 회복시키는 효능을 가진 약물을 흡수시켜 살을 차오르게 한다. 자연적인 창상치유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최근에는 더마롤러(derma roller), 마이크로니들링 테라피(microneedle therapy system, MTS)라는 이름으로 개량되어 사용되고 있다. Fig. 2는 자침후 교원질섬유가 유도 증식되는 원리를 도해한 것이다. 거침(車鍼)을 이용하면 표피에서 진피에 이르는 구간에 미세한 통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피부재생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의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Fig. 3은 도포약물의 0.3%만 흡수되는 일반 피부 모습과 40회 가량의 거침(車鍼) 시술후 약물흡수가 증가된 피부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2) 황자침법

황자침법은 일반 호침을 이용하여 주름선과 평행하고 주름 밑을 황자하는 침법이다. 황자는 전중혈처럼 경혈이 매우 얇고, 피부와 뼈의 간격이 얇을 때 사용하는 침법으로, 절개침법과 유사한 원리로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자침 후에 침 주변을

관찰하면 혈액이 모여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락장부의 기가 불균형한 것을 조절한다는 ‘調氣’라는 침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²⁹⁾. 또는 국소적인 허증인 피부주름에 자침 후 유침을 하면 부족한 기를 보충하기 위해 기혈이 모이는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횡자침법은 팔자주름같이 깊은 주름이나 눈가주름같이 너무 얇은 주름에 비해 근육방향과 수직으로 발생하는 미간주름·이마주름에 보다 효과적인 침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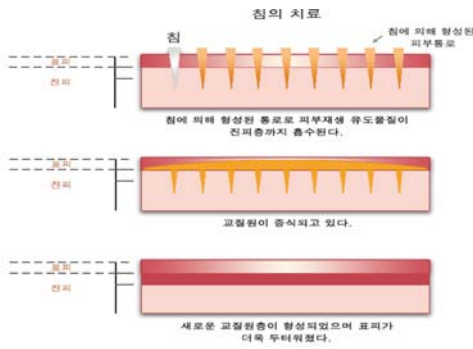


Fig. 2. Functional region and mechanism of microneedle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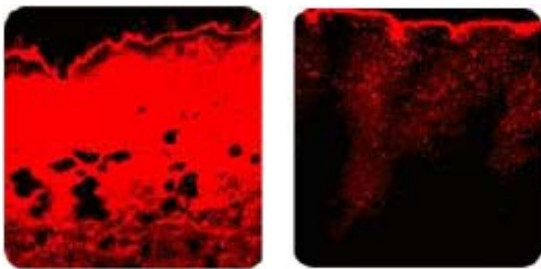


Fig. 3. Different of medication absorption of common skin and after microneedle treated skin²⁸⁾

3) 절개침법(진피절개술, subsicion)

18-21G 주사바늘³⁰⁾이나 끝이 삼각형으로 날이진 노커침(nokor needle), 경사면이 3개인 바늘(tri-beveled needle) 또는 자입이 가능한 소형 삼릉침을 이용한 침법이다. 보통 주름이나 흉터(특히 둥근모양을 가지는 rolling scar)는 섬유성 띠가 진피의 아래층에서 SMAS까지 연결되어 있다³¹⁾. 이러한 띠를 절개하면 주름의 함몰점과 SMAS층이 벌어지게 되어 흉터나 주름 밑의 장력이 소실된다. 절개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Fig. 4. 참조). 1단계는 (a)와 같이 절개침을 주름 함몰부위 아래 부분까지 자입하고,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섬유성 띠를 절개한다. 2단계는 (b)와 같이 자동차의 와이퍼처럼 부채모양으로 움직인다. 니들의 날로 섬유성 띠를 끊는다. 3단계는 (c)와 같이 주름 밑에 혈종이 생겨 붓게 된다. 절개침법으로 생기는 혈종은 단기적으로는 주름 밑의 섬유성 띠가 다시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공간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질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추측된다.

절개침법을 이용한 주름의 개선과정은 Fig. 5와 같다. 일종의 섬유성 띠가 SMAS층으로부터 진피층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을(A), 바늘을 이용하여 SMAS층과 안면근에 연결된 띠를 끊으면(B), 누출된 혈액이 절개부위 상처에 모여들어(C), 상처가 치유되면서 새로운 결합조직이 형성되고, 함몰된 부위를 밀어 올

리게 된다(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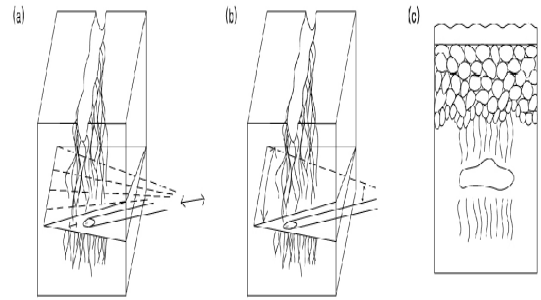


Fig. 4. Procedures of incision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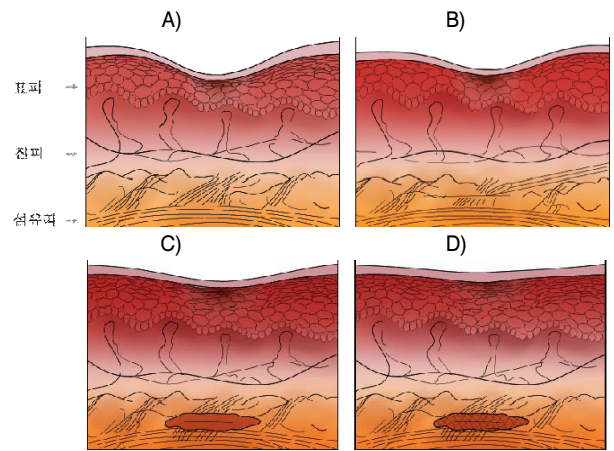


Fig. 5. Wrinkle cure using subsicion of acupuncture³²⁾

고찰

노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적 변화로 전신에 걸쳐 일어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부 주름이다. 표피는 피하층 근육의 끊임없는 운동에 의하여 접히고 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노화의 진행에 따라 이 부분에 주름을 형성하게 되며³³⁾, 기후 등 외부 자극에도 영향을 받는다³³⁾.

피부노화는 표피·진피·피하지방층에 모두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중에서 진피층에 있는 교원질(collagen)의 변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원질의 감소는 진피 표피 경계부의 역학적인 안정성에 변화를 주어 주름을 형성하게 하고, 교원질 이외에 탄력소(elastin)의 감소가 나타나며 노인의 경우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³⁴⁾.

국소적인 피부변화는 주름 생성기전중 표피와 진피가 얇아져서 주름을 생기고, 피부밑에 존재하는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해서도 주름이 생기는데 해당주름을 만드는 국소근육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연관된 안면·두경부 근육과 근막 상태 파악도 중요하다.

한의학에서 피부를 膚·革·分肉·肌·腠理·玄府 등으로 나누는데, 膚·玄府는 표피에 해당되고, 革은 진피에 해당되며, 分肉은 피하지방층에 해당된다. 腠理는 피부, 기육과 장부의 紋理를 말하며, 진액이 滲泄하는 곳을 腠라 하고 文理가 중횡으로 만나는

것을 理라 하였던 바³⁵⁾, 피부 주름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 腠理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부는 精血과 津액을 저축하는 작용이 있으며, 폐·신·삼초·방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인체의 기·혈·진액의 운화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³⁶⁾.

침으로 피부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經絡·經筋·皮部이다. 특히 경근이란 심이경맥과 그 락맥 속의 기혈이 자양하는 근육조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육·근건·근막·인대 등을 포함하며, 피부란 심이경맥과 그 락맥이 분포된 피부의 부위를 가리키며 피부상의 경락분포영역이다. 경근이나 피부는 경맥 및 락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⁸⁾. 따라서 주름의 형성과 치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첫째, 12경락과 12경근, 둘째, 두경부 근육과 근건막, 셋째, 표피·진피·피하지방층의 국소적인 피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부미용면, 육체심리적인 면에서 그 영향이 적지 않은 주름을 제거·완해함으로써 노화현상을 막고, 보다 젊고, 건강하게 피부를 유지하는 하고자 하는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의학계에서 침을 통한 항노화치료와 주름개선, 얼굴 윤곽 조정, 피부치료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침치료법으로는 美容針療法, 整顔鍼, 미소안면침 등이 있다. 미용침요법은 1980년 강 등¹¹⁾이 針刺療法를 안면미용에 활용한 최초의 침치료법으로, 안면·鼻部의 혈위 및 인체경락상의 특정부위에 자침하여 자극을 줌으로써 안면의 病變狀態露呈이나 안면피부의 皺皮 등을 치료 또는 예방하여 안면의 건강미를 保持하도록 하는 化粧침요법이고, 整顔鍼은 안면부와 두경부, 흉부의 경혈을 사용하여 인체 상부에 정체되어 있는 氣血을 풀어서 水升火降을 돕고 이를 통해 주름개선 등 미용효과와 안면부의 여드름 등 피부 질환을 완화시키는 침법이다¹²⁾.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소안면침은 안면 피부 속 표정근 주위 혈자리들을 침으로 풀어주고 경혈을 자극하여, 얼굴의 처진 근육을 올리고 주름을 없애며 자연스런 얼굴 윤곽을 살려주는 침술요법이다¹⁵⁾. 미소안면침의 작용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TMJ와 관련된 근육은 물론 얼굴의 표정을 짓게 하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어 얼굴의 불균형을 조정시켜 주며, 둘째는 안면부 혈류를 개선시킴으로써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영양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콜라겐의 재생을 촉진하므로 피부주름은 물론 안색을 윤택하게 해준다³⁷⁾.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국소 주름침법은 횡자침법, 직자침법, 절개침법 등 다양한 침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침도 九鍼중 호침과 장침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침²⁰⁾, 피부침, 거침(車鍼), 도장침, 삼릉침, 노커침(nokor needle), 경사면이 3개인 바늘(tri-beveled needle) 등을 사용하여 기혈소통뿐만 아니라 외과적 시술까지 확대함으로써 호침 중심의 미소안면침·정안침·미용침 요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실주름제거술은 얼굴의 팔자 주름이나 늘어진 턱선, 전체적으로 탄력을 잃은 얼굴라인을 실로 걸어 팽팽하게 당겨주는 주름제거법이다²⁾. 바늘 내부에 장착된 실에 양쪽으로 나선형 돌기가 있어 피부와 피하지방층, SMAS층까지 당겨 올려주어 주름을 자연스럽게 균형있게 펴주어 시술부위가

절개침법과 유사하나, 침대신 실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주름 침법의 장점은 전신적인 관점에서 침치료를 행하기 때문에 연관된 장부의 기능장애를 함께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톡스나 필러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지속시간이 길며, 국소적인 부분만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다양한 활용을 기대한다.

결 론

한의학에서는 주름은 腠理·紋理의 범주에 포함되며, 안면주름 부위에 따라 장부 허실과 三焦·胃·大腸이 중요하게 평가받았으며, 얼굴을 지나는 三陽經絡, 任·督脈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기에 경근이론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근막이론이 결합되는데 이는 두경부·흉부·안면부의 근육과 근막·경혈을 자극하여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지나치게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며, 늘어진 근육을 긴장시키는 자침법과 수기법이 활용된다.

두경·안면부 정안침요법과 횡자침법에는 호침이 쓰이며, 직자침법에는 피부침·거침·도장침이 쓰이고, 절개침법에는 삼릉침이나 노커침, 경사면이 3개인 바늘 등이 사용된다.

주름을 치료하기 위한 국소적인 침법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직자침법, 둘째, 횡자침법, 셋째, 절개침법이다. 직자침법은 피부침이나 매화침, 거침 등이 사용되며, 피부의 자연적인 상처재생원리를 응용한 치료법이다. 횡자침법은 주름의 방향에 따라 침을 횡자하여 함몰된 주름밑으로 기혈이 모이도록 유도하여 주름을 치료하는 원리이다. 절개침법은 자입가능한 삼릉침이나 주사용 니들을 사용하여 주름밑의 섬유성 띠를 절개하여 함몰된 부위를 거상시키는 방법이다.

침을 이용한 주름치료는 부가적으로 혈색의 개선, 두경부 만성피로, 안면마비, 탈모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향후 주름 이외에 리프팅·기미·여드름 등에도 응용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서동해, 장가연, 손호찬, 류지호, 이상준, 송계용. 고주파(Therma Cool TC System)를 이용한 안면부 피부주름 치료 67예. 대한피부과학회 초록집, 2004.
2. 류지호. 주름없는 건강한 피부 관리. 공업화학 전망 8(1):32-33, 2005.
3. 조희령, 유박린, 최봉근, 김낙인. 고주파와 근적외선 병합요법을 이용한 피부 이완과 얼굴 주름의 치료. 대한피부과학회지 46(4):480-486, 2008.
4. 김은주, 임미혜, 최태부. 초음파 관리와 비타민 C 제제가 피부주름 개선에 미치는 효과. 대한피부미용학회지 3(2):81-90.
5. 이진아, 이원주. 마황근과 화피 추출물의 국소 도포에 따른 피부주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42(1):1396-

- 1405, 2004.
6. 김금란. 연령별 피부 상태에 따른 피부주름 지수의 변화.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1(1):23-35, 2006.
 7. 송점식. 의학집요. 문경출판사, pp 77-78, 1992.
 8. 이안용 원저. 안면망진법. 정담, p 21, 32, 1993.
 9. 김광호. 새롭게 눈뜨는 한의학. 김광호 생리학 강의록, p 211, 1999.
 10. 하성준. 경근과 근육의 배합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5, 2006.
 11. 강성길, 최용태. 미용침요법에 관한 연구 -치료대책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1(1):9-11, 1980.
 12. 이홍민, 강성길, 김창환, 김용석. 정안침의 주요경혈 및 자침 수기법에 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5(1):179-186, 2008.
 13. 김주희, 권효정, 송정화, 최도영, 이상훈, 이재동. 안면침 시술을 위한 안면 근육의 해부학적 이해 및 임상적 적용에 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5(3):1-8, 2008.
 14. 이소영, 고정민, 김주희, 권효정, 정지윤, 송정화, 최도영, 이재동, 이상훈. 중증 안면마비에 대한 미소안면침 증례보고. 대한침구학회지 26(1):163-171, 2009.
 15. 황덕상, 송정화, 김용석, 이경섭. 미소안면침 시술 후 안면부 체온변화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5(1):89-95, 2008.
 16. 안영기. 경혈학총서. 서울, 성보사, p 34, 1991.
 17. 고석국, 주미성,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제2기 역. 국역 침구혈명해 침구혈명석의. 서울, 일중사, p 20, 1996.
 18. 전국한외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침구학(상). 서울, 집문당, p 61, 315, 1993.
 19.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 34, 1985.
 20.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 12, 168, 1985.
 21. 윤형철. 보톡스 임상적 사용(개정판). 미래출판사, pp 134, 163-164, 183, 216, 261, 264, 2004.
 22. 신문석. 필러의 임상적 사용. 도서출판 한미의학, pp 83-85, 2004.
 23. Larrabee, Makielski, Henderson, 홍준표, 정유삼, 김영균 역. 얼굴성형해부학 2nd edition. 서울, E*PUBLIC, p 49, 50, 52, 2006.
 24. M. 슬라마니츠, 이원석, 장효죽. 매직리프트. 서울, 열매출판사, p 33, 2004.
 25. 이 립. 실용중의피부과학. 북경, 중의고적출판사, pp 1-2, 1998.
 26. 재편집 동의학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도서출판 까치, p 942, 1990.
 27. Hyung sik moon, Seong eon Kom, duk sung Ko, ai young Lee. Collagen induction therapy in mouse. Dept. of Dermatology,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Dongguk University, 2006.
 28. Kim beom joon.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Dept. of dermatology dongguk university international hospital, 2006.
 29. 전국한외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침구학(하). 서울, 집문당, p 1017, 1993.
 30. Greg, J. Goodman. Therapeutic undermining of scars (Subcision®). Australasian Journal of Dermatology 42: 114-116, 2001.
 31. Carolyn I. Jacob, Jeffrey S. Dover, FRCPC and Michael S. Kaminer. Acne scarring: A classification system and review of treatment options, J Am Acad Dermatol Jul, 45(1):113, 2001.
 32. Orentreich, D.S. and N. Orentreich. Subcutaneous Incisionless (Subcision) Surgery for the Correction of Depressed Scars and Wrinkles. Dermatologic Surgery 21. 6: 546, 1995.
 33. 이현화. 피부노화에서 주름과 그 관리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5(2):619-620, 1999.
 34. Leslie Baumann. Cosmetic dermatology(코스메틱 피부과학). 정담미디어, pp 32-35, 2004.
 35. 장승순. 피부병에 관한 한·중·일 삼국의 다용처방에 대한 비교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5, 2001.
 36. 양력 지음, 박경남, 김남일, 김정규 옮김. 중의질병예측학. 서울, 법인문화사, p 226, 2001.
 37. 김용석. 미소안면침의 작용원리에 대한 소고. URL:http://www.mjmedi.com/content/_common/com_vie_wasp?tb=project6&num=510.